

그들의 음악에 지휘가 없어도 되는 이유

시각장애인 실내관현악단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하나, 둘, 셋...” 신호가 떨어지자 무대는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찬다.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에는 여느 관현악단에 필수적인 지휘자와 보면대(악보를 놓는 받침대)가 없다. 시각장애를 가진 음악인들로 구성된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지휘 대신 이상재 음악감독의 목소리를 듣고, 안보(眼譜) 대신 암보(暗譜)하여 연주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일을 가능으로 바꾼 이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7월에 열린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의 창단 공연 현장을 찾았다.

글·사진 이용우 대중음악잡문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학교 다닐 때도 장애인 친구를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이는 성인이 된 뒤로도 마찬가지였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펴 불편한 뮤지션을 알고 있으나 친교를 운운할 사이는 아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장애인 수는 결코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장애인 공식 등록인구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미등록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50만 명에 가깝다). 몇 해 전 유행한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 확인해준 ‘사회에서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된다’는 통념까지 고려하면, 그동안 장애인들과 제대로 된 접촉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그게 비단 나만의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무엇 때문일까. 조금만 곱씹어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냉대 그리고 장애인에게

가혹한 제반여건 외에 달리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장애인이 교육도, 직업도, 친교도, 여가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물리적 장애에 앞서 뒤틀린 사회의 정서와 척박한 인프라가 결정적 요인이니까. 장애인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우며, 이는 '슬프지만 진실'이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사실상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과장일까.

시대를 수놓은 눈먼 뮤지들

여기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라는 관현악단이 있다. 이들에게 '시각장애 전문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체임버오케스트라'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체임버오케스트라? 체임버(chamber)는 '방'이란 뜻이고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을 가리키니 실내 관현악단을 뜻한다. 흔히 오케스트라 하면 떠올리는 심포니오케스트라(대편성 관현악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단원으로 소규모 무대에서 연주하는 관현악단이라고 보면 그리 틀리지 않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로서 이들이 정말 세계 최초일까.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계 최초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관현악단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창시절 피아노나 통기타를 배워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몸에 불편함이 없어도 악기를 배우고 익히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함께 어우러진 합주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물론 그동안 시각장애를 가진 음악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없기는커녕, 듣고 나면 무릎을 치게 되는 음악인들이 적지 않다. 몇 해 전에 전기 영화 <레이>로 대중의 뇌리에 새롭게 되살아난 R&B와 소울의 전설 레이 찰스와, 시각장애 가수로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린 스티비 원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20세기를 빛낸 대표적인 팝 스타로 손꼽힐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1970년대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라틴계 포크 가수 호세 펠리치아노도 빼놓을 수 없는 뮤지션이다. 크로스오버 음악 팬이라면 이탈리아 출신의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를 단박에 떠올릴 것이며, 재즈 팬이라면 '재즈계의 현존하는 퍼스트레이디'란 극찬을 들은 바 있는 재즈 싱어 다이앤 슈어를 호명할 것이다.

시선을 바다 건너에서 한반도 남쪽으로 옮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때 이곳'의



가수 이용복과 '지금 이곳'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라면 검은 안경에 통기타를 연주하며 <그 얼굴에 햇살이>, <어린 시절> 등을 노래하던 이용복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요즘 가장 유명한 이로는 전제덕을 들 수 있다. 학창시절 사물놀이패에서 장구를 치며 이름을 날리던 그는 하모니카로 전향한 후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로 거의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가능한 작전?

눈치 빠른 이라면 알아차렸겠지만, 앞서 언급한 시각장애 음악인 대부분은 대중음악 뮤지션이다. 클래식 음악계에는 시각장애 음악가가 매우 드물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에 출연해 주인공 로돌포 역으로 분하는 '기적'을 선사한 안드레아 보첼리의 예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클래식계에 시각장애 음악가들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클래식 악기는 고가이며, 어느 정도 독학이 가능한 대중음악과 달리 비싼 레슨과 정규교육이 필수적이다. 또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기량을 연마해야 한다. 무엇보다 클래식은 대체로 곡의 길이가 매우 길며, 곡의 구조도 복잡하고 협연 악기도 훨씬 많다. 대중음악이 3분 내외의 길이에 단순한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텍스트 자체를 익히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다. 흔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모방부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핸디캡이 설상가상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음악을 익히려면 악보를 봐야 하는데, 이들 시각장애인은 수백 가지가 넘는 악보용 점



왼쪽 페이지/ 플루트 주자 장성주(왼쪽), 오영인.
오른쪽/ 비올라 주자 이길준.



자기호를 익혀(이것은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참으로 어렵게 점자악보를 읽고 외워야 한다. 그나마 국내에 점자악보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현실은 누구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한 클래식 음악인들이 바로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든든한 등지가 되어주고, 미국 피바디음대 사상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재(음악감독, 클라리넷) 백석대 겸임교수가 주축이 되어 올 3월 결성되었다. 한양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김종훈(바이올린) 악장을 비롯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트를 연주하는 10명의 시각장애인 단원이 오디션을 통해 모였다. 여기에 비장애인 연주자 6명이 객원으로 합류했고, 수도권 최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방송사업자)인 ‘씨앤엠’이 후원을 자처해 힘을 보탤다.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의 존재는 단순히 ‘시각장애 음악인들의 신기하고 놀라운 의기투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지 않은 수의 시각장애 연주자들 모두, 드물게 현악 4중주 활동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솔리스트로 활동한다. 오케스트라란 자신의 악보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포지션의 악보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보지 않고’ 여러 악기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현악단이 지휘자 없이 연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므로 지휘자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점자악보를 어렵게 확보한다고 해도 악보가 많도록 외우고 익혀서 독주로 연주하는 것만 해도 대단

한 일임을 감안하면, 관현악단을 이뤄 협연을 한다는 건 누구도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일임에 분명하다.

장성주(플루트) 단원은 이렇게 말한다. “저뿐 아니라 단원 모두 오케스트라는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음대에서 기악 전공자에게 중요한 필수과목인데,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악보를 밤새워 외워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휘자도 볼 수 없고, 대규모 협연도 현실적으로 힘들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계기가 마련돼서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우리 자신조차 ‘이게 가능할까’ 하는 회의가 많았는데, 해보니까 정말 놀랍고 재미있더라고요.” 덧붙여, 처음엔 틀리지 않고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을 걱정하는 수준이었지만, 한번 맞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길준(비올라) 단원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시각장애 음악가는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애초에 솔리스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악기를 익히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솔리스트 악기를 공부하다 보니, 저희도 중저음 악기 연주자가 없어서 단원을 선발할 때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바순, 호른, 콘트라베이스 같은 악기들은 비장애인 객원 단원이 맡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바이올린을 했는데, 비올라 단원이 없어서 비올라로 들어왔어요.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가지 않은 길, 귀를 기울이면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어느 관현악단에 필수적인 두 가지가 없다. 지휘자가 없고, 보면대(악보를 펼쳐놓는 받침대)도 없다. 악보를 펼쳐놓고 ‘안보(眼譜)’하면서 지휘에 따라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들은 악보를 모두 외우는 ‘암보(暗譜)’가 필수적이며, 연습 때 이상재 음악감독의 ‘소리에 의한 지휘’를 통해 부단히 맞춰나간다.

단원들은 저마다 눈물나는 사연 하나둘쯤은 지니고 있다. 왜 아니겠는가. 음악을 배우며 욕심만큼은 커녕 최소 수준도 따라주지 않는 여건 때문에 더러 자살까지 생각해본 이가 적지 않을 정도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올 5월부터 매주 서울 가락동에 있는 하트하트재단 강당에서 손발을 맞췄다. 천안,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단원들은 평소엔 재단 측에서 만들어준 점자악보를 닳도록 외우고, 연습 때면 서울로 어려운 걸음을 해 지난하게 하모니를 맞춰온 것이다.

그 첫 결실이 지난 7월 19일에 열렸다. 여의도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것. 상투적으로 들리겠지만 600여 객석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객석의 반응은 개인적으로 근래에 경험한 어떤 공연보다 더 뜨겁고 진심어려 보였다. 1부는 현악 4중주, 플루트 2중주,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및 플루트의 앙상블 등 단출한 편성으로 꾸며졌다. ‘중달새’란 부제로 알려진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작품부터 멜컴 아놀드의 다소 난해한 목관 2중주 작품까지 정통 클래식 넘버 네 곡이 울려 퍼졌다. 2부에는 전 단원이 무대에 올라, 친근하고 귀에 익은 클래식과 영화드라마음악을 들려주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천국〉 주제곡, 드라마 〈주몽〉 삽입곡인 유키 구라모토의 〈Memory of Love〉 등 ‘한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곡들이었다.

인상적인 곡을 꼽아보라면, 영화 〈여인의 향기〉와 〈트루 라이즈〉의 탱고 장면이 삽입되어 잘 알려진 카를로스 가르델의 〈Por una Cabeza〉, 그리고 영화 〈스팅〉의 메인 테마곡인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를 들 수 있다. 앞의 곡은 탱고의 섹시하고 정렬적이면서도 우울한 무드가 잘 형상화되고 뒤의 곡은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의 발랄한 사기극을 떠올리게 해 빙그레 미소 짓게 했다. 이 두 곡이 인상적이었던 이면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던 듯싶다. 앞의 곡은 〈여인의 향기〉의 그 유명한 탱고 신(scene)의 주역인 알 파치노가 시각장애인으로 분했던 점이, 그리고 뒤의 곡은 작곡가 스콧 조플린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점이 오버랩 되어 감흥이 한층 깊어진 게 아닐까 하는. 어쨌든 이 곡들은 너무나 적절한 선곡에 연주자들의 표현이 극대화된 연주였다.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특별히 다르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 바이올린 주자 남민경(왼쪽)과 첼로 주자 구남희.

연주 중간중간 눈을 감고 들어보았다. 현란한 비주얼이 난무하는 시대, 음악 역시 ‘보는 게 중요해진’ 시대, 더러 그런 식으로 음악의 본연을 되돌아보곤 한다. 비주얼이 개척한 새로운 감각과 감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점점 지배적으로 강화되어가는 시각에 가려, 음악의 청각적 특성과 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는 것이다. 눈을 감고 들으면, 자연스럽게 감각은 귀에 집중되어 온전히 소리의 어우러짐과 파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같은 음악이지만, 그렇게 눈감고 들은 음악은 이전의 음악과 다르다. 발가벗은 채 음악과 살갓을 부비며 대면하는 느낌 또한 이전의 시청각에 의한 느낌과 다르다. 이들의 연주도 예외 없이 눈감고 들을 때 감응의 폭과 깊이가 커졌다. 그래서였을까.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은은히 귀에 남았다.

긴 호흡으로 내딛는 특별한 발걸음

시각장애인들로 관현악단을 결성하고 연습하고 연주회를 가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의 연속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클래식 음악계와 장애인 커뮤니티 모두에 있어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의 존재와 행보는 새로운 실험이자 놀라운 진보이며, 그 자체로 경이이다.

그게 다일까. 장애인들이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인간승리 내지

는 휴먼감동 식의 관점에서 포장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하다. 혹시 장애가 말 그대로 장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는 다른 특별한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내고 열매맺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예민한 청각과 독특한 감수성으로 남다른 예술세계를 빚어낸다면 하는.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가감이 없다. “(시각장애인은) 일상에서 필요에 의해 청각에 집중하게 되고 청각적 훈련이 반복되면서 더 예민하게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 상상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앞을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음악적인 걸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상상을 하며 그려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에 담긴 것이 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느끼지 못한 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통찰력도 생기고요. 하지만 시각장애인이어서 특별한 재능이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각장애인의 예민한 청각능력은 음악적 청각능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뭐 일반인이나 똑같습니다.”(이길준 단원)

정유경(바이올린) 객원 단원도 시각장애로 인해 특별한 재능을 지니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시각장애 단원들이 예민한 감성과 놀라운 집중력과 암기력을 지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장애인 중에도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특별히 이 분들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 분들은 아마 장애가 없었어도 그랬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시각장애가 예술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전혀 없어야 하겠는가. 시각장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한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아서가 아닐까.

그들과의 만남이 긴장되면서도 즐거웠던 것은 경이로운 연주를 즐길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짧게나마 제대로 소통할 수 있어서다. 드레스리허설의 휴식시간에 짬을 내느라 여러 단원과 동시에 대화하지 못하고 한 명씩 얘기를 나눴는데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공통된 얘기가 많았다. 사람들이 평소 시각장애인을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접해보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며 자신들을 특별히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렇다. 또 단원들은 예상보다 밝고 활달했다. 객원 단원들에게 물어보니,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농담을 할 정도로 다들 성격 좋고 유머러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를 만난 지도 꽤 여러 날이 지났다. 그 사이 창단연주회 공연실황이 케이블TV 씨앤앰을 통해 녹화 방영되고 취재기사도 여러 지면에 실린 바 있다. 공연의 감격과 함께 대중의 관심 어린 시선과 매스미디어의 호의적인 기사들로 들떠 있을 법도 한데,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추가 단원을 모집하는 등 연말께로 계획된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느라 연습에 매진 중이라는 후문이다

가장 오래 얘기를 나눈 이길준 단원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공통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통된 음악을 한다는 것이 저희에게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가 음악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음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단원 중에 시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장애 정도가 심각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 오케스트라가 사회와 소통하는 징검다리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활동이 어린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을 전공할 계기가 되길, 그래서 그들이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연주자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생계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게 될 날을 꿈꿉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비전이 되면 좋겠어요.” 장성주 단원 역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적 있다. “이 오케스트라가 잘 되어서 기존에 음악을 공부하고 있거나 시각장애인 일반에 어떤 비전, 정말 실제적인 비전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많은 연주자가 배출될 수 있겠지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다던가. ‘진정한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가 오래 통런해서, 시각장애인은 물론 ‘삶의 시각장애에 걸린’ 비장애인들에게도 비전을 전염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글쓴이 **이용우** 대중음악비평모임 ‘엘트 바이러스’와 웹진 [weiv]를 거점으로 글을 써왔다. 가수보다는 작곡가와 밴드를, 스타보다는 배후와 조력자들,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주목해왔으며, 대중음악의 현재만큼이나 과거에 대해, 상업과 예술만큼이나 산업적 측면에 대해, 뮤지션 못지않게 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함께 지은 책으로는 <엘트 문화와 록 음악 2> <오프 더 레코드 인디 록 파일> <한국 팝의 고고학 1960/1970>이 있다.